

번역문 두 개를 비교할 때 확인할 맥락

똑똑 · 에디터 이음 · 발행 2026.09.30

단어 대 단어보다 상황·화자·독자의 목적을 대조합니다.

수치·상황·인물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학교·제품·사람에 관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쉬운 설명

단어 대 단어보다 상황·화자·독자의 목적을 대조합니다. 번역은 낱말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일만은 아닙니다. 원문의 앞뒤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핵심

- 번역은 낱말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일만은 아닙니다.
- 원문의 앞뒤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 번역의 자연스러움은 목적과 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념 · 무엇을 구분하나요?

번역은 낱말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일만은 아닙니다. 같은 표현도 화자와 상대의 관계, 글의 목적에 따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달라집니다. 두 번역을 비교할 때에는 원문의 문맥과 생략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방법 ·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원문의 앞뒤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말한 사람, 듣는 사람, 말투를 적고 번역에서 새로 더해진 의미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두 번역의 장단점을 근거 문장과 연결합니다.

가상 사례 · 직접 써 보는 비교

가상 대화에서 “That works”를 한 번은 “그거 괜찮아”, 다른 번역은 “그 방법이 작동해”라고 옮깁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는 장면이라면 앞의 표현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계를 시험하는 장면이라면 뒤의 표현이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한계 ·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

번역의 자연스러움은 목적과 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을 짧게 떼어내 번역의 정오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실제 문장을 공개 자료에 옮길 때에는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That works”가 만날 시간을 정한 뒤 나왔다면 어떤 번역이 자연스러운가요?

확인 설명

“그 시간 괜찮아”처럼 약속을 수락하는 뜻이 자연스럽습니다.

번역문 두 개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번역은 낱말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일만은 아닙니다. 같은 표현도 화자와 상대의 관계, 글의 목적에 따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달라집니다. 두 번역을 비교할 때에는 원문의 문맥과 생략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번역의 자연스러움은 목적과 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사례를 실제 학교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사례는 읽기 연습용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해당 장소·시기·대상과 원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과 출처

- Pew Research Center · Questionnaire Design and Translation — <https://www.pewresearch.org/questionnaire-design-and-translation/>: Translation process: 직역보다 의미의 비교 가능성; 문학 번역의 일반 법칙 아님
- Library of Congress · Informational Text — <https://www.loc.gov/classroom-materials/informational-text/>: Suggestions for Teachers: 자료의 관점·표현 방식 비교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daily-2026-10-13>